



선박안전 운항수칙



항해준비

항해계획 수립

- TV · 라디오를 통하여 기상 · 해상정보를 입수
- 항해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형, 수심, 항로표지 등을 확인
- 긴급 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확보
- 자기 배의 성능에 맞는 항해계획을 수립



선체의 확인

- 선저, 현측, 갑판에 파손된 곳이 있는지 살핌
- 어창, 기관실로 물이 새는 곳이 있는지 꼼꼼히 살핌
- 갑판 상 배수구가 막힌 곳이 있는지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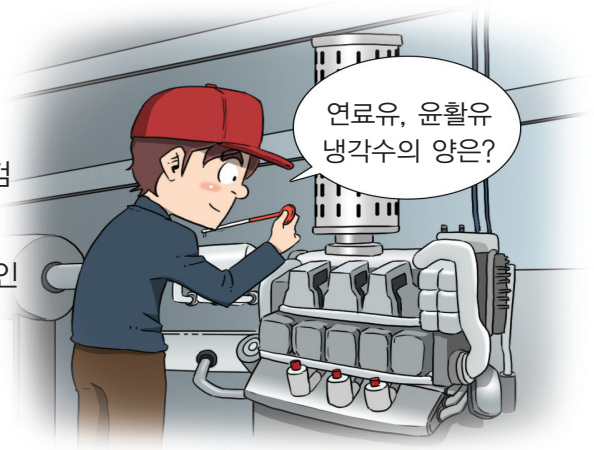




기관회 확인

● 시동 전 점검

- 기관실에 기름이나 물이 새는 곳이 있는지 점검
- 연료유, 윤활유, 냉각수의 양은 적당한지 측정
- 해수 흡입밸브, 연료유 밸브는 열려 있는지 확인
- 배터리 충전은 잘되어 있는지 점검
- 배터리 및 배전반의 전선 고정 볼트는 잘 죄여져 있는지 확인



● 시동 후 점검

- 냉각수가 배 밖으로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
- 윤활유 압력이 낮거나 냉각수 온도가 높지 않은지 점검
-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확인
- 이상한 냄새는 나지 않는지 확인



설비점검

- 조타기는 잘 작동되는지 확인
- 항해등은 잘 들어오는지 확인
- 구멍조끼, 구멍부환, 소화기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
- 갑판상 어구, 선용품 등은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박되어 있는지 확인



출항신고 절차

- 출항 전 반드시 출항신고를 하여 사고발생 시 즉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
- 서류준비(어선출항신고서, 선원명부, 선박검사증, 선적증서, 어업허가증, 어업정보통신국가입증)
 - 서류제출(제출처 : 선박출입항통제소 또는 신고소)
 - 신고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출항신고서 및 선박식별신호포판 수령
 - 출항





항해 중 안전수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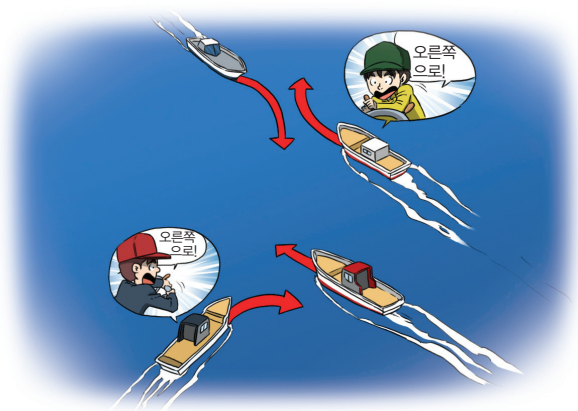
철저한 경계

- 경계는 눈, 코, 귀, 쌍안경 및 레이더 등 모든 수단을 이용
- 늘 항해하는 곳이라도 방심은 금물
- 경계 시 음주, 졸음 및 산만함은 절대 금물
- 정기적으로 자선 위치를 반드시 확인



해상교통법규 준수

- 서로 마주치는 경우 우현으로 변침
- 서로 횡단하는 경우, 타선을 우현에 두고 있는 선박이 우현으로 변침
- 안개, 눈, 비 등으로 다른 선박을 볼 수 없을 때 속력을 줄이면서 기적, 징, 팽과리 등으로 자선의 위치를 알릴 것



기관의 관찰

- 주기적으로 기관을 관찰
- 윤활유 압력이 낮거나 냉각수 온도가 높지 않은지 관찰
- 이상한 소리나 냄새가 나지 않는지 항상 주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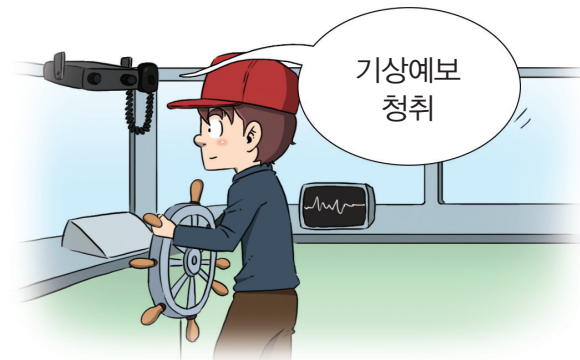


폐어망 등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 금지

- 바다에 버려진 폐어망 등이 프로펠러에 감기는 사고 유발
 - 주기관 고장 원인이 됨
 - 기상악화 시 선체전복 위험 초래

기상예보의 청취

- 라디오, SSB, VHF 등을 이용한 기상예보 청취 생활화
- 기상변화에 주의하고 나빠진다고 판단되면 미리 피항





입항 후 안전수칙

계류

- 기상악화로 선체 및 선용품이 유실되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둔다.
- 타선과 접촉으로 선체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선체좌우의 방현재를 점검하고 안전하게 배를 묶어둔다.

선체 · 기관의 점검 등

- 연료밸브가 닫혀 있는지 확인한다.
- 전원은 차단되어 있는지 점검한다.
- 기관실, 어창, 선원실 등에 파도나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가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한다.
- 항해기록 및 기관운전기록을 정비해둔다.



입항신고

- 입항신고도 출항신고와 같이 태풍이나 기타 위험상황 발생 시 선박의 안전 확보에 중요하므로 필히 하도록 한다.
- 신고절차는 입항 → 입항신고서 및 선박식별번호포판 제출 (제출처 ; 선박출입항통제소 또는 신고소)

